

溟州 崛山寺址

發掘調査 略報告

白 弘 基

一、序 言

崛山寺는 新羅 文聖王 一三年(八五一)에 梵日國師에 의해서 創建된 寺刹로서 ① 新羅下代 九山禪門中の 하나인 闍崛山派의 本山이다. 開山 祖 梵日은 唐에서 還國한 後, 崛山寺에서 四〇餘年을 久住하면서 景文 王、憲康王、定康王의 三朝에 國師로서 尊崇을 받았고 ②, 그 門下에는 朗圓大師開淸、朗空大師行寂等 所謂 十聖弟子들이 있어서 門風을 高麗 一代에 助揚하여 九山禪門에서 가장 繁昌하는 바가 되었다 ③. 그러나 闍 崛山門의 宗主寺刹인 崛山寺의 事蹟이나 伽藍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다만 江原道 溟州郡 邱井面 鶴山里에 그 寺址가 남아 있을 뿐이었다.

現在 同寺址에는 幢竿支柱、浮屠塔、石燈材、石佛等 寺刹關係 遺蹟과 遺物이 廣範圍하게 散在되어 있어서 寺刹의 中心建物址가 어느 部分인지 確實치 않으나 地形條件과 瓦塼片의 散布狀態로 보아서 대략 鶴山과 그 앞을 흐르는 鶴山川 사이의 平扁한 臺地 一帶인 것으로 推定되어 왔다. 現在 同寺址는 大部分 民家가 들어차 있고, 耕作地로 利用되고 있는 데다가 浸水被害가 빈번하여 寺址 一帶는 全般的으로 破壞와 攪亂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一九八三年 三月 一五일에 同寺址에서 農業用水開發을 위한 水路工事中 遺構와 遺物이 發見되어 關係當局에 申告되므로써 發掘

調査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江陵大學博物館은 一九八三年 三月 二四日 關係當局의 緊急收拾發掘 方針에 의거 調査計劃書를 작성 제출하였고, 三月 三一日에 發掘許可通 報를 받아 四月 一日부터 四月 一五일까지 調査를 終了하였다. 調査團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指導委員 金正基(文化財研究所長)

鄭永鎬(檀國大學校博物館長)

調査團長 白弘基(江陵大學博物館長)

調査員 李元根(江陵大學 教授)

徐申錫(江陵大學 講師)

調査補助員 李承浩(江陵大博物館助教)

金容萬(學生)外 數名

二、遺蹟의 位置 및 現狀

崛山寺址는 行政區域上으로는 江原道 溟州郡 邱井面 鶴山里에 所在하고, 江陵市街에서 西南쪽으로 약 六km 地點에 位置하고 있다(圖一)。 東 南方向으로 길게 뻗은 標高 一五〇m의 鶴山과 그 앞을 흐르는 鶴山川 사이의 平扁한 臺地 一帶에는 寺刹關係 遺蹟 遺物이 널리 散布되어 있다. 西北쪽 낮은 丘陵 위에는 寶物 第八五號인 浮屠塔이 있고, 浮屠塔에서 東쪽으로 一〇〇m 거리에는 傳說的인 石泉이 있다. 石泉 바로 옆에는 浮屠塔의 屋身石으로 보이는 八角形의 塔材가 놓여 있고, 또 이 石 泉의 西南쪽 一〇〇m 地點에는 둥근 柱座를 갖춘 礎石의 上端部分이 地表面에 露出되어 있으며, 이들 遺蹟의 周邊 一帶에서는 많은 瓦塼片들이 地上採集되어 왔는데 『屈山寺』라는 銘文瓦도 採集된 바 있다 ④.

寺址에서 鶴山川을 건너 東쪽으로 약 七〇〇m 거리의 낮은 丘陵上에 는 寶物 第八六號인 幢竿支柱가 서 있고, 幢竿支柱의 西南쪽으로 五〇〇m쯤 떨어져서 『堀山寺』라는 寺名을 갖고 있는 庵子가 하나 세워져 있

는데 이庵子에는 高麗時代 佛像으로 推定되는 石佛이 二軀 奉安되어 있고 그 앞에는 石燈의 屋蓋石으로 보이는 石材가 地表上에 놓여 있다.

三、崛山寺의 事蹟

崛山寺의 事蹟을 살펴 보기 위해서는 먼저 韓國佛敎史上 闍崛山派로 알려져 있는 梵日과 그를 承繼한 法孫들의 禪脈과 그 事蹟이 究明되어야 하겠으나 이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論考들이 發表된 바⁵⁾ 있으므로 本報告書에서는 이를 略하고, 다만 現在 溟州郡 鶴山里에 所在하는 崛山寺址의 考古學的 調査研究에 參考해야 할 몇 가지 問題만을 叙述하고자 한다.

1、創建年代와 位置

崛山寺의 創建에 관해서 三國遺事에는 「崛山祖師梵日大和年中入唐得法於鹽官以會昌七年還國先創崛山寺而傳敎……」⁶⁾라 하여 梵日이 會昌七年丁卯(文聖王九年, A.D. 八四七)에 還國하여 崛山寺를 創建했다고 하였으나 正確한 創建年代는 記載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祖堂集에는 「以會昌六年丁卯八年還……暨大中五年正月於白達山宴坐 溟州郡都督金公仍請住崛山寺一坐林中四十餘載……」⁷⁾라 하여 亦是 創建年代가 明記되어 있지 않으나 文章의 內容上으로 보아서 梵日은 唐에서 還國한 後, 大中五年(文聖王十三年, A.D. 八五一)正月까지는 白達山에, 그 뒤는 溟州崛山寺에 住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創建年代는 文聖王十三年(八五一)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祖堂集의 「…請住崛山寺…」의 文意에 注意하여 崛山寺는 梵日以前에 이미 創建되어 있었다고 보는 見解⁸⁾가 있으나 三國遺事에는 分明히 梵日의 先創으로 되어 있고, 餘他資料가 發見되지 않고 있으므로 同寺의 創建을 梵日以前으로까지 올려 볼 必要는 없을 것 같다.

다음으로 現在 溟州郡 邱井面 鶴山里에 있는 舊寺址가 創建以來의 崛山

寺址인지에 관해서 이를 斷定할만한 資料는 없다. 뿐 아니라 崛山은 五臺山北臺象王山이라는 說까지 나온 바 있다⁹⁾. 李能和는 《朝鮮佛敎史》에서

『朗圓大師碑云『行至五臺謁通曉大師』라 하였으니 通曉는 即 梵日이요, 五臺는 即 崛山이니라. 又 朗空大師碑에云『詣崛山謁通曉大師』라 하였으니 崛山은 即 五臺임이 明白하고 與地勝覺三陟頭陀山三和寺釋息影庵記에『新羅末有闍崛山品日祖師往建佛寺』라 하였으니 梵日祖師가 五臺에 住錫하여 此地와 相近한 故로 三和寺를 勸建함이니 蓋梵語에 耆闍崛은 譯云『象頭』의 意味인데 江陵五臺山の 北臺를 象王山이라 稱하는 故로 此를 闍崛山이라 稱함이로다』.

라고 하여 崛山을 오늘날 五臺山北臺인 象王山에 比定하고 있는데 그 根據는 梵語 耆闍崛은 『象頭』를 意味하는 말이므로 象頭는 곧 象王山이라는 데 두고 있는 듯 하나 耆闍崛은 『象頭』가 아니고 『鷲頭』인 바¹⁰⁾ 崛山을 象王山에 結付시킨 것은 誤謬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今般發掘時 溟州郡 鶴山里 所在 崛山寺址에서 「屈山寺」「五臺山」의 印刻銘文瓦가 함께 出土되었다. 이것은 朗圓大師碑文의 「…至五臺通曉大師…」¹¹⁾라고 한 記事內容과도 結付되는 것으로써 五臺山과 崛山寺와의 關係를 示唆해 주는 重要한 資料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平昌郡 珍富面에 있는 지금의 五臺山과 崛山寺址와는 約 四〇km 相距한 位置에 있고 地形上으로도 오늘날의 地理概念으로는 전혀 符合되지 않는다. 따라서 『五臺山崛山寺』나 『五臺山通曉大師』는 모두 오늘날과는 相異한 五臺山의 地理概念의 所出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三國遺事¹²⁾、高麗史¹³⁾、東國輿地勝覽¹⁴⁾等 諸文獻의 五臺山에 관한 記事는 모두 오늘날의 五臺山과 一致되는 地理概念을 取하고 있으나 그 起源이 어느 때부터인지는 不確實하다.

2. 岷山寺와 普賢山地藏禪院

岷山寺는 梵日大師가 創建한 後 入寂할 때까지 四〇餘年을 久住한 寺利이었고, 그의 名聲이나 社會經濟的인 背景으로 미루어 볼 때, 相當한 規模의 伽藍이 營造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祖堂集에

「岷山寺一坐林中四十餘載列松行道之廊平石作安禪之坐有問如何是祖師意旨答曰六代不會失又問如何是納僧所務答曰莫踏弗塔級切忌隨他語」¹⁶⁾라 한 것을 보면, 岷山寺는 大師의 『修心不隨宗旨』에 適合한 列松之間의 平石을 安禪之坐로 하였던 山間의 조그만 庵子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大師가 入滅한 後, 그를 嗣承하여 闍岷山門의 二代祖가 된 朗圓大師 開清이 普賢山地藏禪院으로 禪錫을 내린 뒤 來者 雲集하였다¹⁷⁾고 했는데, 當時 岷山寺는 雲集하는 衆人을 受容하기에 不適合했던 것 같고, 이것이 岷山寺와 咫尺의 거리에 있는 普賢山에 地藏禪院을 서둘러 樹立하게 된 動機가 된 것으로 推定된다. 如何든 朗圓大師가 地藏禪院에 住坐함으로써 溟州地方에 있어서 岷山門의 實質的인 本山은 普賢山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地藏禪院은 朗圓大師의 門人 閔規가 施捨하여 初建되었으며 當時 溟州地方의 大豪族이며 高麗太祖에게 크게 공헌한 王順式도 地藏禪院의 檀越이었다. 神鏡·聽靜·越晶·奩言·惠如·明然·弘琳禪師等 朗圓大師의 上足弟子들도 모두 地藏禪院에서 배출되었다. 朗圓大師는 敬順王 四年(A.D. 九三〇)에 普賢寺法堂에서 歸寂하였는데 高麗太祖는 그에게 朗圓大師라 贈諡하였고, 塔名을 悟眞之塔이라 하였으며, 崔彦擥에게 命하여 碑文을 撰修케 하였다¹⁸⁾. 現在 溟州郡 城山面 普光里에 所在하는 普賢寺에는 悟眞塔과 碑文이 모두 남아 있다.

3. 岷山寺의 廢寺時期

梵日以後의 岷山寺에 관한 事蹟을 追跡해 볼 수 있는 資料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나, 高麗 成宗代의 崔承老 上疏文 가운데에

「…伏見聖上遣使迎屈山僧如哲入內臣愚以爲哲果能福人者……何煩迎致」¹⁹⁾

이라한 句節이 보이는 바 高麗初에도 屈山寺는 存續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寺名의 表記가 『岷山』이 아니고 『屈山』으로 되어 있는 點이다. 同寺址에서는 『屈山寺』라 쓰여진 印刻銘文瓦도 多量出土되고 있어서 麗代의 同寺名의 表記가 或 『屈山』으로 變更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 傳燈錄 序文에 屈山寺僧 惠湜의 名이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恭愍王 二年의 傳燈錄 重刊에 屈山寺僧 惠湜이 參與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屈山寺는 恭愍王 年間에도 存續되고 있었던 듯하다²⁰⁾. 그러나 東國輿地勝覽의 江陵都護府 佛宇條²¹⁾에는 上院寺, 月精寺, 獅子寺, 觀音庵, 燈明寺, 地藏寺 등에 관한 記事가 보이거나 岷山寺의 記事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岷山寺는 麗末鮮初에 廢寺된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 同寺址에 남아 있는 浮屠塔이나 幢竿支柱를 비롯해서 佛像 등이 大部分 高麗代의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까지 地表採集된 瓦當片도 大部分 高麗代의 遺物인 點으로 미루어 보아서 岷山寺는 高麗一代에는 存續된 것으로 推定된다.

다음으로 一九七五年에 發刊된 江陵溟州의 地方誌인 臨瀛江陵溟州誌에 『塔山記는 梵日國師가 처음 지었으나 一〇一〇年(庚戌)高麗 顯宗 때 契丹兵의 亂에 없어졌다』²²⁾라고 하였는데 塔山記의 內容이 무엇인지 言及은 없으나 梵日의 著述이라고 하므로, 塔山記는 岷山寺에 保存되어 왔을 것이고, 兵亂에 의한 被害는 寺利에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臨瀛誌에는 塔山記가 없어진 것이 高麗 顯宗代의 丹寇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顯宗代의 丹寇가 溟州地方까지 미쳤다는 記錄은 高麗史에서 찾아 볼 수 없고, 丹寇에 依해서 溟州地方을 포함한 嶺東地方이 全般的으로 큰 被害를 입은 것은 그 보다 二百餘年 뒤인 高宗四年(一一二七)의 일이다. 高麗史에

圖版 1 發掘前 地表上에 露出된 遺構



① 南쪽에서



② 北쪽에서

「……庚辰 崔元世、金就礪、追丹兵于忠、原二州間、戰于麥谷、追至朴達峴、大敗之賊踰大關嶺而遁……」⁽²²⁾

이라 하였고 增修 臨瀛誌에는

「…高宗時自東州陷安陽入原州人力戰……金就礪追擊破之賊東走至溟州大關山嶺……踰嶺陷溟州城四出虜焚燒室屋大殺人民留連數月……丹兵屠溟州北驅至登州自翼峴至金壤所過鷄犬無餘流血千里回軍……」⁽²³⁾

이라 하여 두 記事 內容이 一致되고 있다. 顯宗元年(一〇一〇)丹寇에 의해서 塔山記가 없어졌다는 臨瀛誌의 記事는 高宗四年의 丹寇에 관한 事實의 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그 以外에 高麗時代 溟州地方이 外寇에 의해서 크게 被害를 입은 것은 顯宗二十年(一〇二九)東女眞賊船四十餘雙의 來寇⁽²⁴⁾와 麗末 禡王七年、八年、九年 連續하여 侵入한 倭寇⁽²⁵⁾때의 경우인데 이때에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現在 峴山寺址에 남아 있는 遺蹟과 出土되고 있는 遺物을 보면 同寺가 甚한 破壞를 입고 廢寺된 痕跡이 確然하다.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峴山寺는 新羅 文聖王十三年(八五一)에 梵日國師에 의해서 創建되었으나 祖師가 住坐하였던 期間에는 그의 宗旨에 따라서 大伽藍의 造營은 없었고, 조그마한 山間의 庵子가 있었던 것으로 推定되며, 그를 承繼하여 第二代祖가 된 朗圓大師를 비롯해서 大部分의 有名な 法孫들은 峴山寺를 떠나 他處에서 禪脈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峴山寺는 隆盛을 보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同寺는 高麗一代를 통하여 數次에 걸친 重創과 毀廢가 거듭되면서 麗末까지 存續되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四、遺 構

前述한 바와 같이 農業用水路工事로 말미암아 峴山寺址의 南北을 貫通하는 길이 七五m, 폭 四m, 깊이 二五~五〇cm의 坑(工事用 Trench)이 굴착되었고, 工事坑의 南쪽 끝에서 二五m의 範圍에서 遺構의 上面이 露出되었다(圖版 1-①②)。 그래서 發掘은 이미 露出된 遺構의 構造把握에 重點을 두기로 하고, 먼저 露出된 遺構를 中心으로 二〇m×五m 一〇〇m²의 發掘區域(pit)을 設定하여(圖 2) 除土作業을 實施한 結果, pit의 北쪽 便에서 築臺가 確認되었다. 築臺의 南쪽에서는 臺石이 한 줄 露出되었다. 또 築臺와 臺石 사이에서는 鋪石 바닥이 露出되었다(圖 3, 圖版 2)。



圖版 2 築臺部分 發掘全景(東쪽에서)

1. 發掘 pits에서 露出된 遺構

① 築臺(圖 3、圖版 3—①②)

確認된 築臺의 길이는 二〇m이었는데, 築臺의 西쪽 끝에서 三四〇cm 되는 地點에서 南에서 北으로 築臺를 貫通하여 排水가 되도록 傾斜된 排水口가 一個所 確認되었고, 築臺의 北쪽(排水口의 流出口쪽)에서는 築臺의 上面보다 九五cm 낮은 Level(地表下 九五cm—一〇五cm)에서 舊 地表가 確認되었기 때문에 築臺의 南쪽은 北쪽보다 한 段 높은 基壇의 上面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築臺의 모든 部分은 自然石으로 築造되어 있었는데 밑바닥에 大石을 地臺石으로 놓고, 그 위에 냇돌을 積石하였다. 築臺의 外側은 平扁한 板石形의 自然石으로 쌓고, 內側은 雜石으로 채웠다. 發掘에 의해서 露出된 築臺는 上面이 교란되어 있었으나 比較的 殘存狀態가 良好한 편이었으며, 築臺의 周邊에는 築臺가 무너져서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 雜石들이 散在되어 있었으나 그 량이 적은 편이어서 石築壇의 有無는 不確實하였고, 土牆의 痕跡도 뚜렷이 남아 있지 않았다. 築臺의 크기는 幅 一, 一m~一, 三m, 높이 九五cm이다.

排水口는 左右兩壁은 각각 一枚 또는 二枚의 自然石을 쌓고, 上面은 板石形의 自然石을 덮였으며, 바닥은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平瓦를 깔았다. 排水口는 二〇cm×二五cm이다(圖 3、圖版 4—②③)。

② 臺石(圖 3、圖版 2、3—①)

築臺의 南側에서 築臺와의 間격이 西端部分 三二〇cm에서 東端部分 一七〇cm의 거리로 좁아지고 있는 한 줄의 臺石들이 露出되었다. 이 臺石들은 自然石이었는데 그 上面이 平扁하고 三~四個의 例外를 除外하고는 대체로 水平的 Level에 유지하고 있었으며, 臺石의 北側外線이 直線이 되도록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들 臺石의 建物址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으며, 어떠한 機能을 갖는 構造인지는 앞으로 發掘이 더 進前되어야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鋪石(圖 3、圖版 5—①②)

築臺와 臺石間의 除土作業을 실시한 結果, 臺石보다 二〇~三〇cm 낮은 高이의 Level(地表下 七〇~八〇cm)에서 徑이 一五~三〇cm 정도 되는 多様な 크기의 납작한 냇돌을 깔아 놓은 바닥이 露出되었는데, 築臺와 臺石 사이의 바닥面을 모두 메우지 않고 臺石과 一九〇cm 幅의 區域 內에만 두 區域으로 나누어 鋪石되어 있었다. 鋪石의 크기는 東便鋪石이 五六〇cm×一九〇cm, 西便鋪石은 三二〇cm×一九〇cm이다.

以上 敘述한 遺構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寺刹建物址 北便 外廓의 築臺와 그 內側에 있는 建物의 基臺, 그리고 築臺와 基臺 사이의 地面에 깔려 있는 鋪石의 一部分인 것이 確實하나 細部的으로는 露出된 遺構相互間에 符合되지 않는 點이 發見되어 疑問點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첫째, 築臺의 西便에서 確認된 排水口施設의 流入口 바닥 Level이 鋪石이 깔려 있는 바닥 Level보다 약 二〇cm가량 높게 되어 있는데 그 理由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못한 點。

둘째, 鋪石바닥의 사이 사이에 築臺와 臺石을 연결하는 五〇cm~八〇cm 幅의 積石(Bar)이 2個所 設置되어 있었는데 이 두의 機能이 築臺의 補強을 위한 것인지가 不確實하고, 鋪石 바닥과는 符合되지 않는 施設이라는 點。

셋째, 築臺와 臺石 사이의 幅이 西쪽에서 東쪽으로 가면서 좁아지고 있는데 西쪽 끝부분은 三二〇cm에서 東쪽 끝부분 一七〇cm까지 좁아지고 있어서 兩遺構間의 關係가 甚히 不自然스러운 點이다.

이와 같이 遺構 相互間의 關係가 符合되지 않는 것은 前後時期를 달리하는 遺構가 複合的으로 殘存되어 露出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勿論 이러한 問題는 앞으로 發掘調査가 進前되면 좀 더 確實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Trench에서 露出된 遺構

圖版 3 築臺露出狀態



① 東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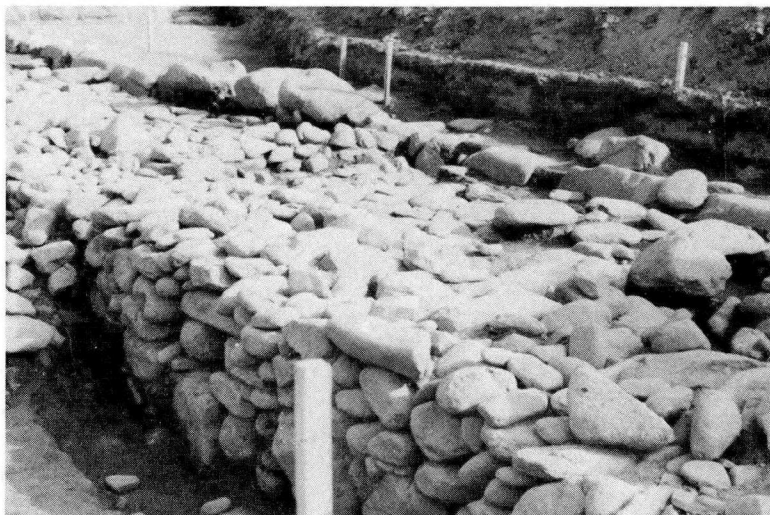


② 北쪽에서



③ 築臺北側
舊地表露出狀態

圖版 4 排水口 露出狀態



① 築臺側面



② 排水施設
流入口(上面)



③ 排水施設
流出口

圖版 5 鋪石露出狀態



① 西側鋪石



② 東側鋪石



③ 鋪石間의 둑
(Bank)

圖 3 築臺部分 平面圖 및 側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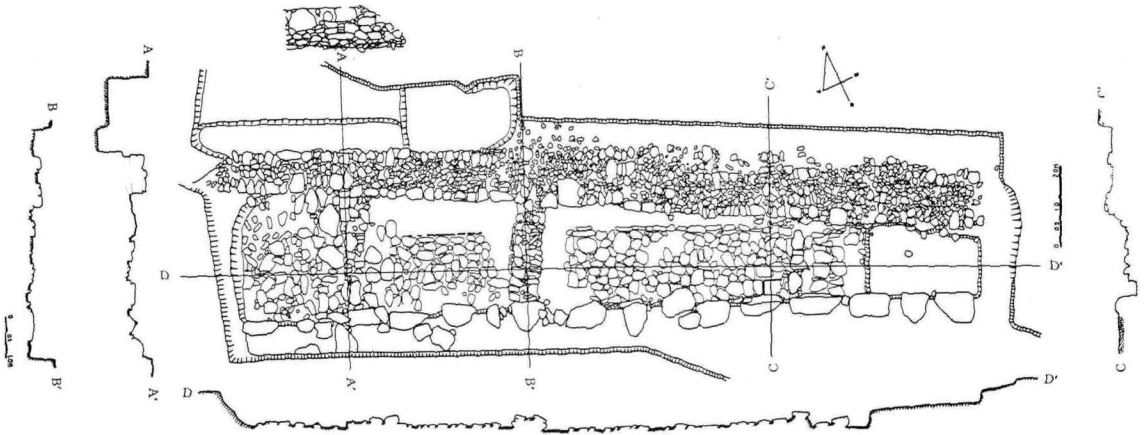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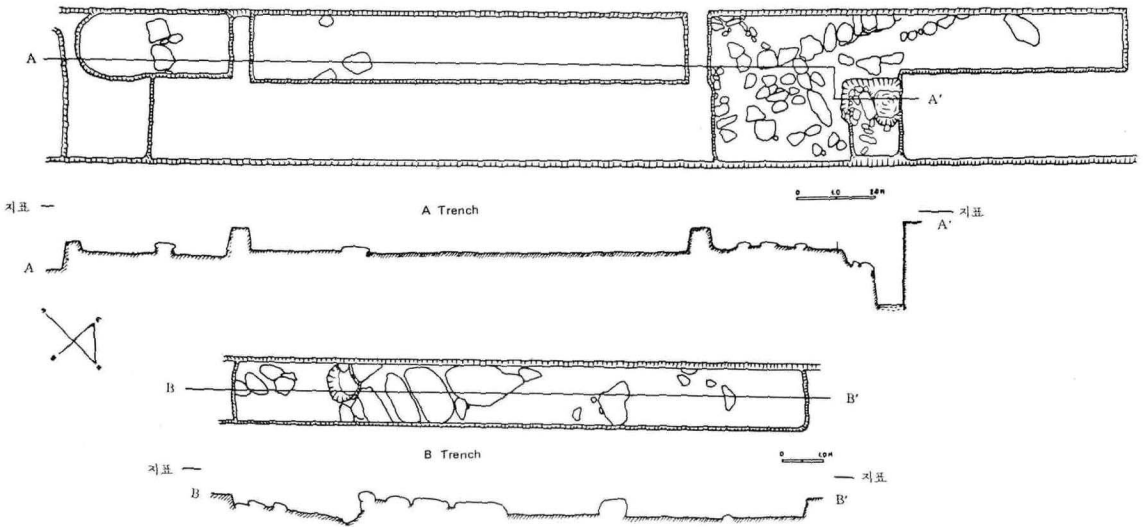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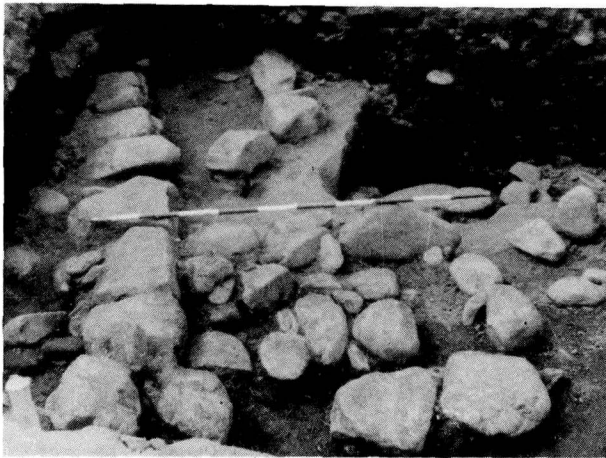


圖 4 Trench



圖版 6 Trench內 遺構露出狀態



① A trench擴張部



② B trench

發掘pit에서 露出된 遺構가 寺址內에서 어떠한 位置에 있는지를 確認하기 위해서, 發掘pit을 中心으로 해서 工事坑에 따라 北쪽(A Trench)과 南쪽(B Trench)으로 2개의 탐색 Trench를 掘어 調査를 實施하였다(圖 2)。

① A Trench(圖 4, 圖版 6-①)

工事坑에 따라 發掘pit의 北쪽으로 길이 二五m, 폭 一、五m의 探索 Trench를 掘어 본 結果, 地表下 九五cm ~ 一〇〇cm에서 舊地表가 잡혔고, 이 Level에서 드문드문 自然石들이 露出되었는데, 이 Level은 發掘pit에서 確認된 舊地表(地表下 九五cm ~ 一〇五cm)와 같은 Level이었다. A Trench의 北壁을 통하여 나타난 舊地表 위에 堆積된 地層은 表土層(Ⅰ) 밑에는 黑褐色土層(Ⅱ), 그 밑에는 瓦塼이 多量包涵된 赤褐色土層

(Ⅲ)이 舊地表의 바닥까지 堆積되어 있었는데, 表土層의 두께가 部位에 따라 差異가 많았고, 表土層과 黑褐色土層 사이에는 礫石들이 포함된 明褐色砂層이 드문드문 끼어 있었다. 이러한 地層의 堆積狀態로 보아서, 遺構가 무너진 뒤, 그 위에 黑褐色土層이 堆積되었고, 이 黑褐色土層 위에는 洪水로 인한 浸水の 흔적(礫石이 포함된 砂層)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表土層(耕作層)이 堆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住民들이 傳하는 말에 의하면, 一九四九年(己丑年)에 이 一帶에 大洪水가 덮쳐서 寺址一帶에서 遺構가 크게 露出되었는데, 그 後 寺址위에 覆土를 加하여 耕作地로 開墾되었다고 한다. 遺物은 주로 瓦塼이 포함되어 있는 赤褐色土層에서 出土되었는데, 불먹은 赤色土와 黑色土도 드문드문 섞여 있었고 大部分의 遺物이 破碎되어 있어서 火災에 의한 寺刹의 파괴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또 이 赤褐色土層은 發掘근쪽인 南쪽으로 갈수록

두터운 狀況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것은 發掘D:1쪽에 建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A Trench에서 確認할 수 있었던 舊地表는 發掘D:1에서 露出된 築臺나 臺石 등의 北쪽 外側으로 一段 낮은 Level에 있었던 生活面인 것으로 생각된다.

② B Trench(圖 4, 圖版 6—②)

工事坑에 따라 發掘 pit 南쪽으로 길이 一五m, 폭 一、五m의 探索 Trench를 掘은 結果, Trench의 北쪽 끝에서 六、四m 되는 地點에서 一〇、五m 되는 地點 사이에서 臺石들로 보이는 自然石들이 露出되었는데 이 臺石들의 上面 Level과 地表下 四五cm ~ 五五cm로 대략 같은 Level이었고, 東쪽 끝 部分에서 臺石들의 外側이 直線으로 連結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 直線을 延長시킨 結果, 역시 直線으로 連結되고 있었던 發掘D:1에서 露出된 臺石 外側線의 延長線과 直交되었다. 이 兩延長線이 直角으로 만나는 地點은 發掘D:1內의 臺石의 東쪽 끝에서 一一、一m이었고, B Trench 北端臺石의 끝에서는 北쪽으로 七、一五m 되는 地點이었다. 現在 이 地點은 民家內에 位置하고 있는데 이 地點이 發掘D:1內에서 한 줄 뚜렷이 露出된 臺石의 東端地點인 것으로 推定된다. 이렇게 볼 때, 發掘D:1內에서 露出된 遺構는 대체로 方形으로 된 寺址의 東北隅地點에서 西쪽으로 三〇m 이내의 範圍에서 露出된 遺蹟인 것으로 推定된다.

五、遺物

圖版 1—①②에서 보는 바와 같이 工事로 말미암아 發掘調査가 착수되기 前에 南北 길이 七二m, 幅 四二m의 區域이 地表에서 二五cm ~ 五〇cm 깊이까지 露出되어 있었다. 따라서 表土層은 勿論 그 밑의 遺物包含層인 瓦塼堆積層의 相當한 깊이까지 露出되고 있어서 이미 甬막새 一二점, 암막새 一二점, 多量の 平瓦片 등이 工事中 出土되어 있었다.

發掘前의 이러한 地表變動으로 말미암아 發掘區域으로 설정된 D:1내의 모든 部分은 사실상 表土層이 完全히 除去되어 있었고, 全般的으로 瓦塼包含層의 Level까지 露出되어 있었다. 工事에 의하여 露出된 坑의 東壁과 西壁을 通해서 確認된 遺構 위의 地層構造는 Ⅰ, 表土層(黑褐色土, 耕作層) Ⅱ, 明褐色砂層(근데근데 形成됨. 礫石 포함) Ⅲ, 黑褐色土層 Ⅳ, 赤褐色土層(瓦塼包含層)이었다. 出土遺物은 모두 遺構의 上面에 堆積된 Ⅳ層에서 出土된 瓦當片, 高麗靑磁片, 高麗土器片 等인데 完形은 없고, 破壞가 심한 破片이 大部分이나 무너 部分의 狀態가 良好한 瓦當片이 數片 포함되어 있었다. 出土된 遺物은 甬막새片 三二點, 암막새片 二七點, 甬기와 암기와 多量, 土製螺髮片 三點, 高麗靑磁片, 土器片 等이다.

1, 甬막새

文樣의 種類는 九種이고, 破碎가 심하여 接合技法을 알 수 있는 것은 한 點도 없었다.

① 蓮花文甬막새 A(圖 5—①, 圖版 7—①)

七瓣의 蓮花文과 間葉을 細線으로 두르고 瓣端이 뾰족하다. 各瓣의 中央을 가로지르는 縱線이 있다. 周緣에는 蓮珠文이 둘러져 있고, 子房에는 蓮子가 있으나 磨滅이 심하여 그 數는 不確實하다. 蓮瓣의 數가 七葉인 點이 注目된다. 直徑 一四、五cm, 子房徑 三、八cm, 周緣幅 一、六cm.

② 圓圈文甬막새(圖 5—②, 圖版 7—②)

子房대신 커다란 半球를 가운데에 配置하였고, 半球의 周邊에는 太線이 둘러져 있다. 周緣部와 子房 사이는 素文이고 周緣에는 蓮珠文이 둘러져 있다. 直徑 一四、二cm, 半球徑 六、八cm, 周緣幅 一、一cm.

③ 蓮花文甬막새 B(圖 5—③, 圖版 7—③)

圖版 7 出土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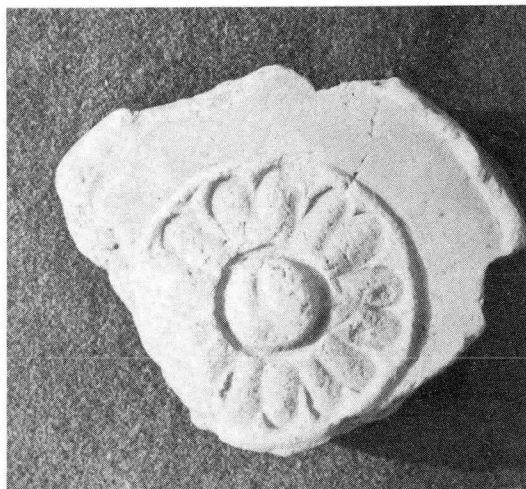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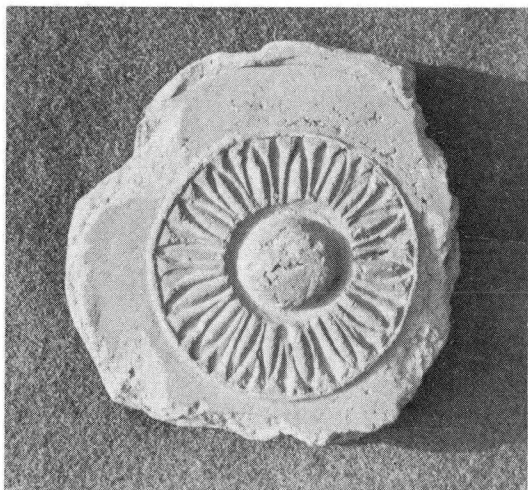
②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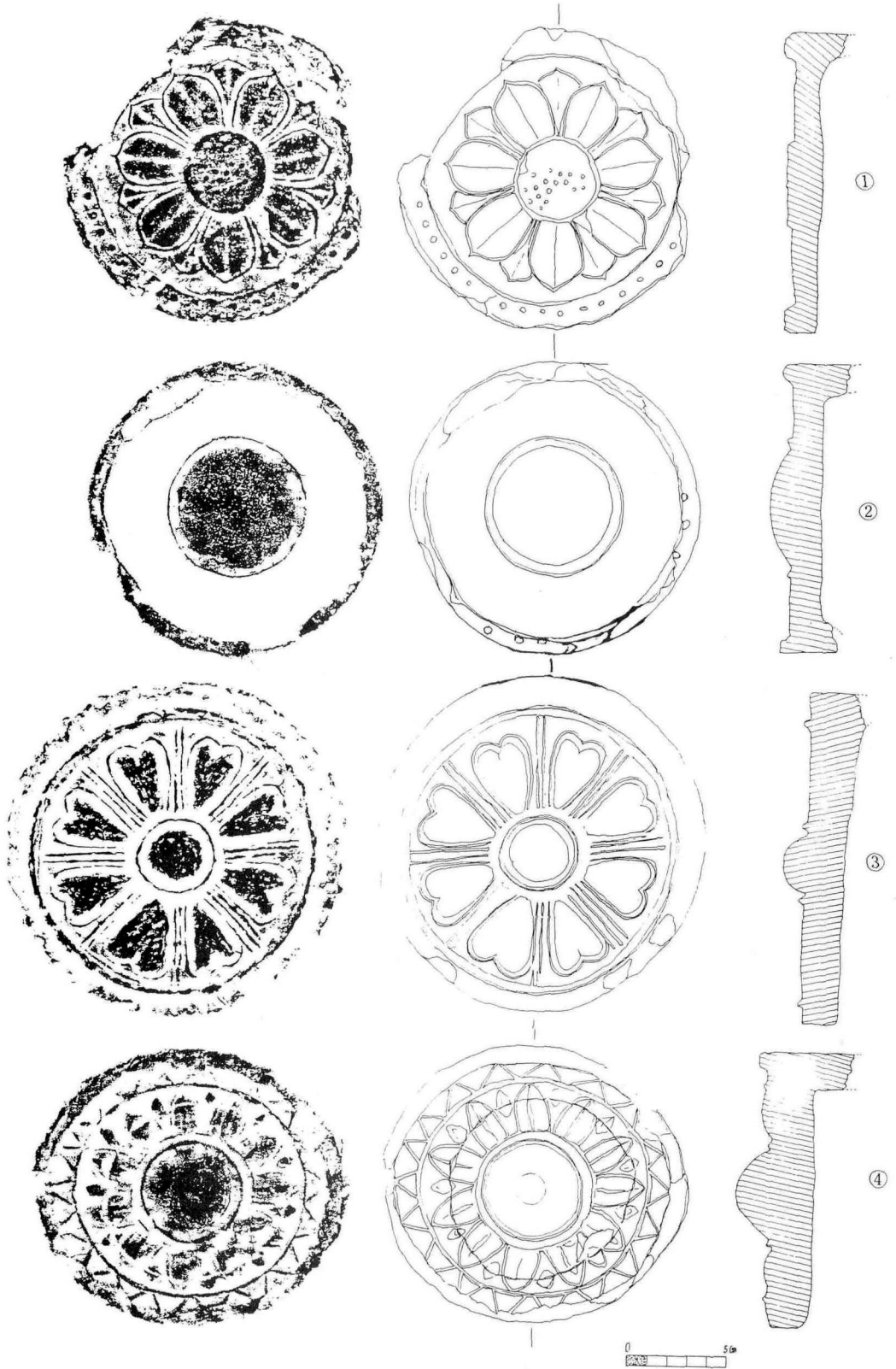


⑤



⑥

圖 5 瓦當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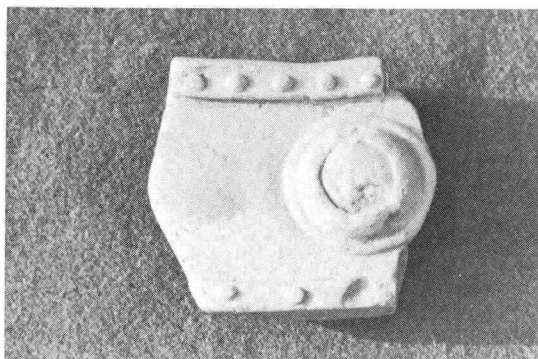
① 工事中 發見된 遺物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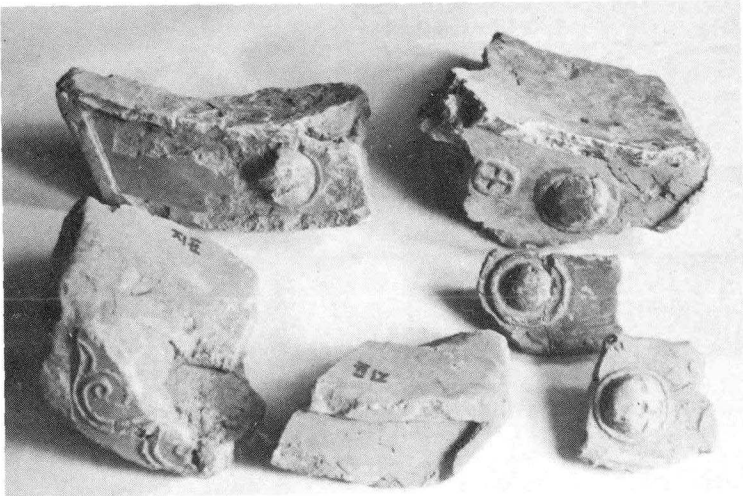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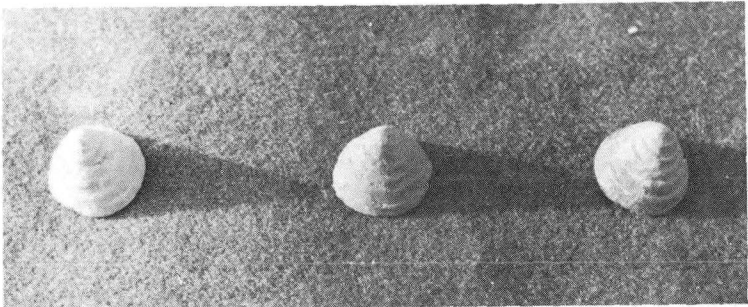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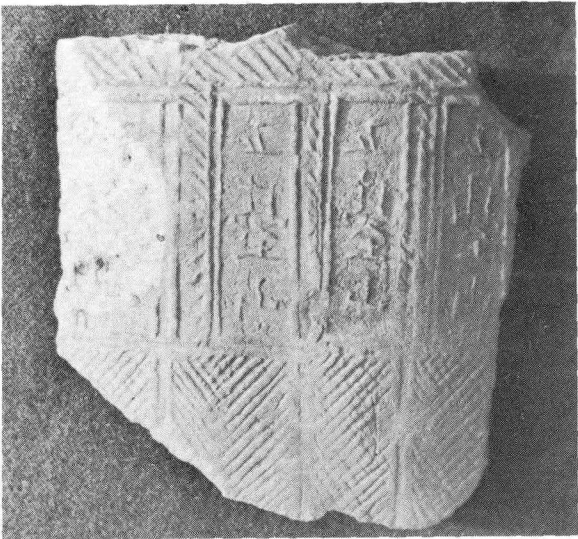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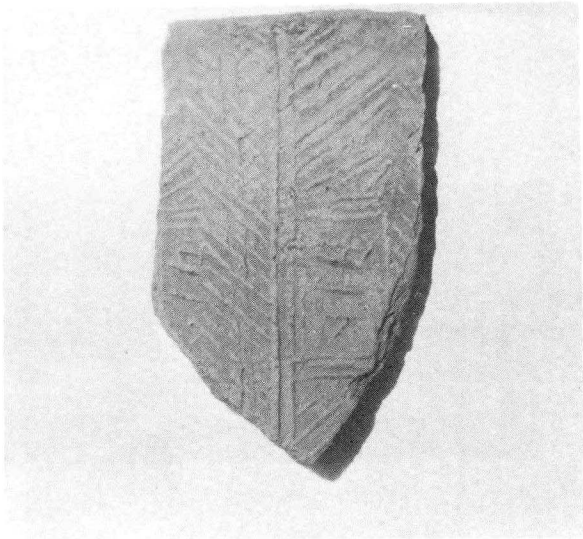
① 工事中 發見된 遺物



② 土製螺髮



③ 銘文瓦「五臺山」



④ 銘文瓦「中一六」

東國輿地勝覽도 모두 峴山으로表記하고 있다. 다만 前述한 바와 같이 高麗史에만 屈山으로表記한 句節이 보이고, 出土된 瓦片에도 屈山으로表記되어 있기 때문에 麗代의 寺名은 『屈山寺』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麗代에 와서 어떤 理由로 해서 바뀐 寺名의表記라고 생각되고, 본래의 寺名은 峴山寺임에 틀림없다. 峴山은 본래 闍峴山の略稱이고 闍峴山の 語源은 梵語의 耆闍崛에서 由來한 것인데 『鶻頭』를意味한다. 耆闍崛山은 印度王舍城에 있으며 林水를 좋아하는 聖人의 住處로 알려져 있는 山이다. 其他 掘山이나 堀山은 近代에 와서 屢번히使用된表記로서 그 歷史的 由來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② 「五臺山銘文瓦」(圖版 9—③)

역시 印刷銘文瓦로서 긴 네모 區劃속에 『五臺山』의 銘文印을 橫列로 여러번 押捺하였고, 그 上下 部分은 縱走魚骨文이 押捺되어 있다. (三、 峴山寺의 創建年代와 位置 參照)

③ 「中一六」銘文瓦(圖版 9—④)

『中一六』의 銘文이 陽刻되어 있다.

4. 土器, 磁器, 土製品

① 土製螺髮片(圖版 9—②)

圓錐形으로 된 外面을 螺髮形으로 띠가 上部로 감아 올려져 있고 佛頭의 螺髮片으로 보인다.

② 青磁片(圖版 11—①②③)

完形은 없고, 破片이 多數 出土되었는데 陰刻 陽刻의 花文과 素文片, 象嵌文片 등이 보인다. 發色은 靑色, 黃色 빛을 띠는 것 등 多樣하고 雜釉片도 數點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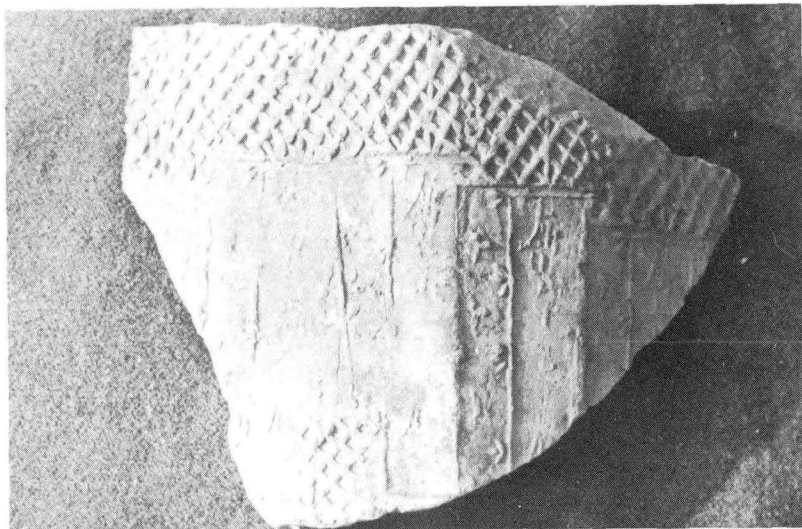
③ 土器片(圖版 10—②③④)

모두 破片 뿐이어서 器形은 알 수 없으나 회청색토기편들이었고, 어께 部分에 굵고 거친 刮상문이 몇 줄 둘러져 있는 것이 注目되었다.

五、結 言

以上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번 發掘의 結果, 東西를 軸線으로 하고 있는 築臺 二〇m와 築臺의 南쪽에 있는 臺石, 그리고 築臺와 臺石 사이의 바닥에 깔려 있는 鋪石 등이 露出되었다. 또 A Trench에서는 築臺보다 한 段 낮아 Level에서 舊地表(築臺의 生活面으로 推定됨)가 確認되었고, B Trench에서는 遺構의 東便 外廓線이 確認되므로써, 發掘에 의해서 露出된 地내의 遺構는 그 周邊 外側보다 한 段 높은 基壇上的 法堂址임을 確認할 수 있게 되었고, 築臺와 臺石들이 露出된 部分은 法堂址의 東北隅에서 西便으로 三〇m以內的 範圍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屈山寺』銘文瓦는 모두 이 遺構의 上面에 堆積된 瓦磚包含層에서 出土되었다. 築臺에서 內側으로 一〇m쯤 떨어진 位置에는 現在 圓形柱坐를 갖춘 柱礎石이 地表面에 노출되어 있고, 住民들의 말에 의하면 一九四九年(己丑) 大洪水 때 이 法堂址 一帶가 急流에 의해서 浸水된 바 있는데 到處에서 礎石階段等 寺址의 遺構가 露出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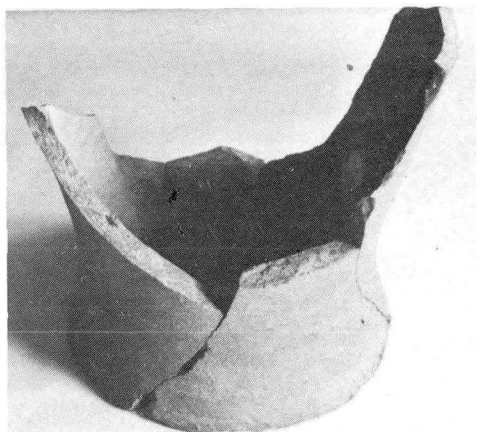
다음으로 이번 發掘에 의해서 露出된 遺構는 그 自體만으로서는 그 年代推定에 도움이 될만한 樣式上的 特徵을 찾아볼 수 없었으나 모든 部分이 例外없이 自然石을 活用하고 있는 點이 注目되었다. 이것이 時代相을 反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資材調達과 관련되는지는 不確實하지만 遺構의 上面에서 出土된 遺物을 통해서 보면 高麗 中期以後의 것이 大部分이어서 二~三세기 以前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主로 遺構의 上面에서 出土된 숫막새片을 보면 全般的으로 子房部는 半球로 변하였고, 周緣은 그 幅이 좁아지거나 낮아졌으며, 珠文도 없어진 것이 大部分이었다. 中心圈의 文樣도 統一新羅期의 文樣要素가 거의 사라진 高麗化가 뚜렷한 것들이 大部分일 뿐 아니라 地域의 特性도 엿보이는 文樣도 數點 보이고 있어서 高麗 中期以後의 瓦當들인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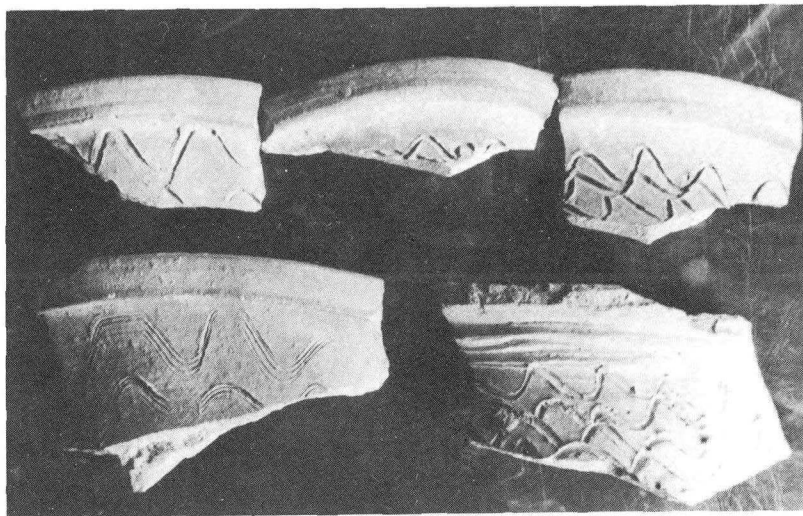
① 銘文瓦「屈山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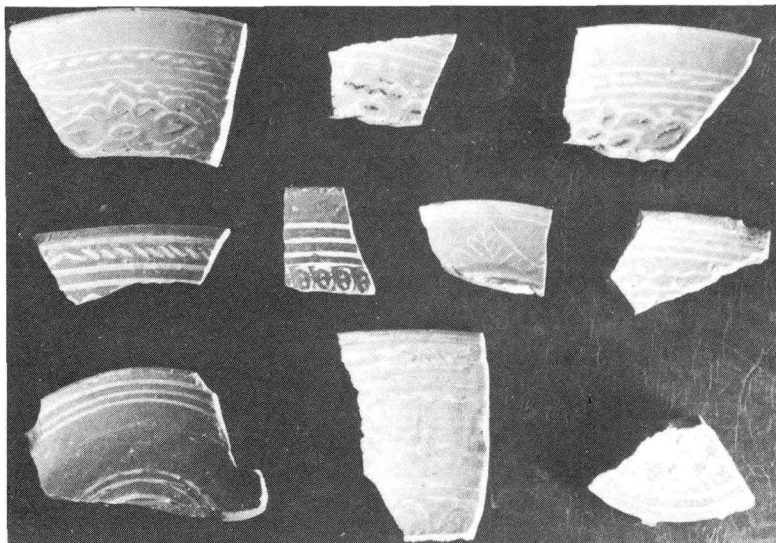
② 土器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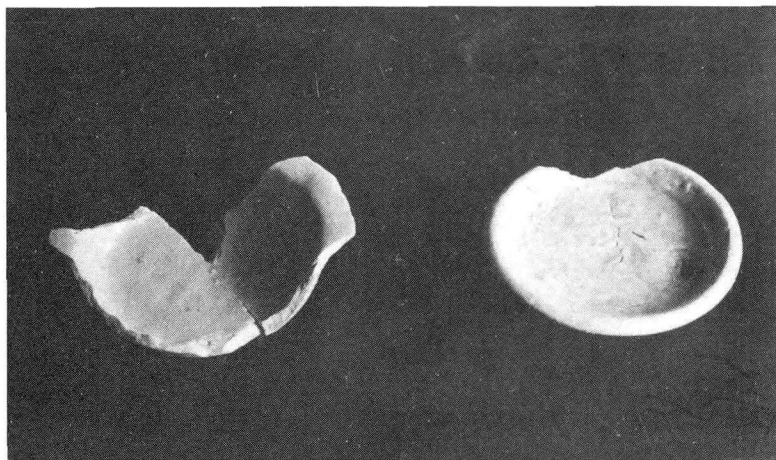
③ 土器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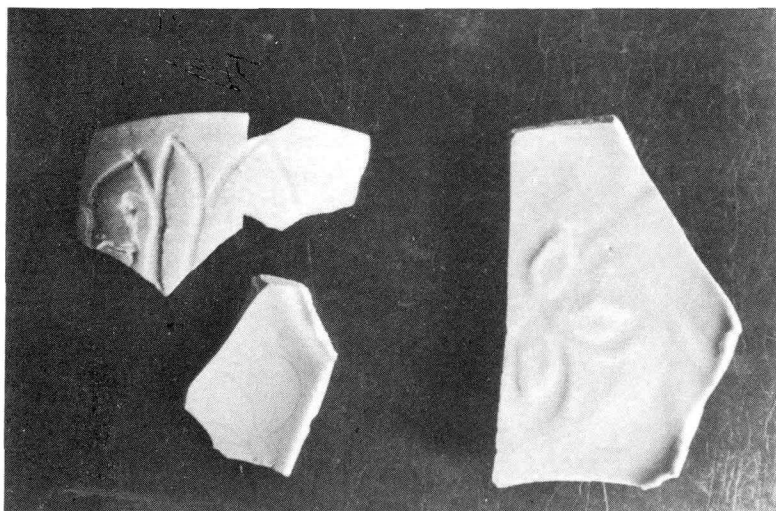
④ 土器口緣部片



① 象嵌青磁片



② 素文青磁片



③ 陽刻，陰刻 青磁片

로推定된다. 한편 多量 出土된 高麗靑磁片을 보면 陰刻, 陽刻, 素文, 象嵌靑磁片이 모두 보이나 發色, 器形, 文樣面에서 그 退化相을 현저하게 보여 주는 것도 包含되고 있어서 高麗後期的 性格을 反映해 주었고, 朝鮮時代 靑磁器나 白磁片等은 단 一點도 發見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遺構의 下限年代는 麗末鮮初인 一四세기 말에서 一五세기 초로 推定된다.

이번 發掘은 數萬坪으로 推定되는 峴山寺址에서 그 範圍가 三〇餘坪에 不過하고 發掘에 의해서 노출된 遺構 역시 部分的인 것에 不過하기 때문에 峴山寺址全體規模나 伽藍의 配置, 遺構의 構造에 대한 究明은 全적으로 앞으로의 發掘의 進前에 依存될 수 밖에 없겠으나, 지금까지 莫然하게 推定되던 峴山寺址의 一角이 具體的으로 表出되므로써 歷史的인 峴山寺의 諸問題들이 여러 角度에서 提起될 수 있는 契期가 마련된點에서 그 意義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註]

- ① 三國遺事 卷三 洛山二聖 觀音正趣 調信條 및 祖堂集 卷十七
- ② 祖堂集 卷十七 溟州峴山故通曉大師條
- ③ 金映遂 「曹溪宗 禪宗에 就하여」, 震檀學報九卷, p. 161. (震檀學會, 1938)
- ④ 申千湜, 「韓國佛敎史에서 본 梵日의 位置와 峴山寺의 歷史性 검토」, 嶺東文化 創刊號, p. 23. (關東大, 嶺東文化研究所, 1980)
- ⑤ 金映遂, 前揭書.
- ⑥ 崔炳憲, 「新羅下代禪完九山派의 成立」, 韓國史研究 7 (1972) 등의 論考가 있다.
- ⑦ 三國遺事 卷三
- ⑧ 祖堂集, 卷十七.
- ⑨ 申千湜, 前揭書, p. 9.
- ⑩ 李能和, 朝鮮佛敎史, p. 128.
- ⑪ 大漢和辭典 所引 「水經河水注」
- ⑫ 朝鮮金石總覽, 五一, 江陵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
- ⑬ 三國遺事 卷三, 臺山五萬眞身, 溟州五臺山實叱徒太子傳記等
- ⑭ 高麗史 志 第十二, 地理三, 溟州條
- ⑮ 東國輿地勝覽 卷四十四, 江陵都護府條

- ⑮ 祖堂集, 卷十七
- ⑯ 朝鮮金石總覽, 前揭碑文
- ⑰ 朝鮮金石總覽, 上揭碑文
- ⑱ 高麗史 列傳 卷六 崔承老條
- ⑲ 申千湜, 前揭書, p. 26
- ⑳ 東國輿地勝覽 卷四十四
- ㉑ 臨瀛 江陵溟州志, p. 206 (1975)
- ㉒ 高麗史 世家 二十一 高完四年條
- ㉓ 增修 臨瀛誌 古事條, p. 52. (江陵古蹟保存會, 1933)
- ㉔ 高麗史 世家 五, 顯宗二十年條.
- ㉕ 高麗史 列傳 卷四十七 辛禱二, 七年, 八年, 九年條